

성별·지역간 사회교육 기회격차에 관한 연구

배 성 의
공주대학교 지역사회개발학과

A Study on the Opportunity level of Adult Education by Gender and Regions

Bae, Sung Eui
Dept. of Community Development, Kongju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Education has been emphasized as one of tools of realizing social equality, which has its base on the ideology of equal education opportunity. The Opportunity level of adult education is important in the meaning of social equality. but these days It is being inequality. so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1) measuring the opportunity level of adult education in Korea, 2) analysing the difference adult education level by gender, regions, 3) making out the gap of the its level by social educational agencies, 4) to suggest the way to improve the opportunity level of adults educations between adults by gender, regions. The followings are the results from the study: Adult education participation level were lower. Adult education participation level per adult education type showed higher participation at private institutes, lower at cultural center of community and school's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are not properly utilized in adult educational activities. By adult education participation level per gender and location, women have a higher participation level then men, and urban areas have a higher participation level then rural areas. In case of location, environment variables is most explanatory in adult education participation level. To strive for methods to activate school-oriented adult education activities and to develop political solution to ease the resources gaps for adult education investment among regions in order not to deepen environment gaps of adult education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For adult education activation, institution and bodies in charge of adult education should expand and discover hardware and develop and distribute software. Also, adult education specialists who operate and manage these hardware and sofeware efficiently should be recruited.

Key words: adult education, adult education participation, adult educational opportunity

I. 서 론

1. 문제의 제기

교육기회의 문제는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평

등과 불평등, 불균등, 격차 등의 용어로 표현되며,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되어 왔다. 교육기회에 대한 논의는 문제의 접근, 개념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교육평등의 존재 여부에 대한 당위성이나

양적 질적 수준에 대한 해석도 달라지기 마련이다.

현대사회에서는 사회적 지위와 위신의 분배가 교육받은 양에 의해 위치가 지워지며, 교육은 그러한 지위나 위신에 알맞는 사상이나 의도 및 지식들을 제공하는 것으로 여겨왔다. 뿐만 아니라 교육을 받은 연한은 직업 및 수입획득의 가장 큰 결정인자라는 연구결과(Ann P. P. & Robert J. P., 1978)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교육은 사회적 평등이나 적어도 기회의 균등을 이루기 위한 전략으로 간주되어 왔다.

미국의 Colman보고서(1966), 영국의 Powden보고서(1967), 프랑스의 Boudon보고서(1973), 그 이후 선진 산업국가에 관한 Husen의 연구를 필두로 하여 교육격차의 논쟁은 오늘날까지 철학적, 사회적, 교육적 수준에서의 논의는 계속되고 있는 편이다.(김병성 1985).

교육기회의 문제를 교육참여와 관련시켜 살펴보면, 교육기회는 투입요건으로서의 교육기회, 교육과정으로서의 교육기회, 그리고 교육의 결과로서 교육기회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전자의 충족이 후자의 실현을 위한 전제 내지 토대가 된다. 특히 투입요건으로서의 교육기회는 다시 허용성으로서의 교육기회와 가능성으로서의 교육기회를 나누어 볼 때 교육참여는 가능성으로서의 교육기회로써 학습대상자가 실질적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의 접근을 가로 막은 경제적·지리적·사회적 제반 장애를 제거해 교육의 실질적인 참여를 가능토록 보장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법규적 측면에서 교육기회평등은 모든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정책적·행정적 측면에서는 거의 학교교육에 한정하여 학령기의 아동·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학교교육의 기회평등을 다루고 있다. 그 결과 학교교육기회를 놓쳐 버린 사람들에게는 교육기회평등의 원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었다.

따라서 이의 해결을 위한 새로운 교육제도를 구성해야 된다는 견해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새로운 교육기회평등의 실현과정으로서 등장한 것이 사회교육을 통한 교육평등이다. 산업사회가 고도화 될수록 사회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사회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될수록 교육의 평등문제가 학교교육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교육에서 까지 논의되어야 한다. 오늘날 학교교육이 국가발전의 지표가 되던 시기가 지나가고 있으며, 사회교육이 국가발전의 지표가 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학교교육에 있어서 지역, 계층, 성별 등의 변인에 따라 교육기회의 분배가 불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많은 실증적 연구들(J. E. Floud 1972, Jencks C., et. al. 1992)이 있다.

교육의 평등이 사회교육에서 더 강조되어야 할 이유로서 학교교육에서 벌어진 남녀간, 도농간, 사회계층간의 교육격차가 사회교육에서 더 벌어지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사회교육은 교육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사회교육참여에 작용하는 중요한 변인들로 성, 연령, 직업, 소득, 교육수준 등을 들면서 여성, 육체노동자, 저소득층 등 학교교육에서의 불리한 집단은 사회교육에서 여전히 불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김광하 1985)

사회교육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체로 상황적 요인(situational factors), 교육환경적 요인(institutional factors), 학습자의 성향적 요인(dispositional factors) 등으로 분류되며 이들 요인들은 단독변수가 아닌 복합변수로 작용한다. 이 중 교육 환경적 요인에는 학습자의 요구에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의 유무 또는 기존 프로그램의 적절성 정도, 제공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정도, 교육제공기관의 위치, 교통상의 편의성, 교육 시기, 시간의 적절성 및 교육 참여 절차상의 복잡성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도농간의 사회교육 기회 격차의 문제는 지역사회 사회교육 환경차이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따라서 교육에서 평등한 기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간 사회교육 참여기회의 불평등정도를 분석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역간 환경격차로 인한 문제들을 시정해 나가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성인들의 사회교육 참여수준과 성별 및 지역간 사회교육 참여의 차이

를 비교 분석하여 지역간 사회교육의 기회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 이를 위한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한국 성인들의 사회교육 참여수준을 규명하고,
- 둘째, 성별 및 지역간 사회교육 참여수준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며
- 셋째, 성별 및 지역간 사회교육 유형별 사회교육 참여수준의 차이를 분석하며
- 넷째,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성인들의 사회교육참여를 증대와 성별 및 지역간 사회교육의 기회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3. 연구의 방법

연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문헌연구를 통해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설문지 내용은 개인의 사회교육 참여수준, 개인의 배경적 변인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으로 작성하였다. 사회교육 참여수준은 사회교육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학습경험의 기간으로서 사회교육활동의 유형별¹⁾ 참여수준에 관한 조사항목은 행정기관에서의 각종 연수 및 교육참여 경험 5문항, 지역사회 문화시설이나 단체에서 실시하는 사회교육 활동참여 경험 3문항, 민간단체나 기업체에서 실시한 사회교육활동 참여 경험 3문항, 사설학원에서의 교육참여 경험 4문항, 학교에서 실시하는 사회교육활동의 참여 경험 4문항으로, 총 5개 영역의 19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이들 문항에 대한 평점은 김수일(1982:21) 등과 김진한(1992:52) 등의 기존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사회교육 참여수준별 평점표를 보완하여 사회교육참여점수²⁾를 산출하였다.

연구대상지역은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집

락표집(cluster sampling) 방법에 의해 대도시지역, 중·소 도시지역, 농촌지역의 3개 지역권으로 분류하여 총 16개 지역을 조사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으며, 해당 지역권에 거주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남녀 1,238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법과 면접법을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자료선별(data cleaning)과정을 통해 이중 1,193명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0.0을 이용하였으며, 빈도분석 및 빈도와의 비교에 중점을 둔 통계적 유의방법으로 교차표의 각 셀의 관찰빈도와 두 변인 간에 관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χ^2 통계치를 이용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방법은 다음의 방법에 의해 분석되어진다.

$$\chi^2 = \sum_{i=1}^R \sum_{j=1}^C \frac{(f_{ij} - \hat{f}_{ij})^2}{\hat{f}_{ij}}$$

\hat{f}_{ij} = i 번째 행과 j 번째 열 cell의 기대빈도.

f_{ij} = i 번째 행과 j 번째 열 cell의 관측빈도.

R = 행의 수

C = 열의 수

II. 결과의 분석 및 논의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응답자 개인의 일반적 배경을 보면, 남자가 596(50.0%), 여자는 597명(50.0%)으로 분석되었으며, 남녀의 비율은 지역간에 있어서도 비슷하였다. 연령별로는 40대(30.7%)가 가장 많았으나, 지역별로 보면 농촌지역은 대도시나 중소도시보다 20대 연령이 적은 반면 5,60대 연령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리고 교육수준별로 보면 고졸이 627명(53.6%)으로 가장 높았으며, 중졸(20.5), 전문대졸 이상(16.4%), 국졸이하(9.5%)의 순으로 나

1) 사회교육 유형은 한국사회교육총람에서 분류한 사회교육 유형분류를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회교육의 유형을 5개 유형으로 대별하였으며, 각 유형별 유사한 교육활동을 3-5개 영역으로 세분하여 문항을 작성하였다.

2) 사회교육 참여점수는 사회교육의 항목별로 참여정도에 따라, 없다 1점, 7일 미만 2점, 7일 이상 - 2주 미만 3점, 2주 이상 - 1개월 미만 4점, 1개월 이상 - 2개월 미만 5점, 2개월 이상 - 4개월 미만 6점, 4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7점, 6개월 이상 - 1년 미만 8점, 1년 이상 9점으로 평점하여 합한 점수이다.

타났으나, 지역을 고려할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도시지역의 학력 수준이 높았다. 직업을 분석한 결과는 전체 조사 대상자중 전업주부가 259(21.7%)이며, 이는 설문에 응답한 여성 직업의 44.7%를 차지한다. 전업주부를 제외한 조사대상자의 현재의 직업을 기준으로 본 개인의 직업지위를 보면 중상층(25.1%), 중층(21.8%), 중하층(17.9%), 하층(9.6%), 상층(3.9%)의 순으로 나타났고, 자신의 직업지위와 배우자의 직업지위 중 높은 지위를 가족의 직업지위(전업주부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직업지위)로 보았을 때 중상층(35.2%), 중층(29.9%), 중하층(19.4%), 상층(7.8%), 하층(7.8%)의 순으로 자신의 직업지위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조사대상자의 사회교육 참여수준

조사대상자들의 각 영역별 사회교육 참여수준과 사회교육 종합 참여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참여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점수의 분포를 살펴보면, 사회교육 종합 참여수준 점수 평균은 28.77이며 표준편차는 8.38, 비대칭도는 1.51정도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교육의 참여수준은 높은 사람에 비하여 낮은 사람들의 비율이 높으며 전반적으로 참여수준의 격차정도가 심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사회교육이 대중화되지 못하고 사회교육의 활동이 일부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그 기회가 집중되고 있음

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사회교육의 특성상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또한 개인의 사회교육적 욕구와 참여동기의 차이와 실질적으로 사회교육참여를 위한 환경적 요인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사회교육의 참여수준을 유형별로 종합해 보면 사설학원에서의 사회교육의 참여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사회교육, 학교에서 실시하는 사회교육, 민간단체 혹은 기업체에서 실시하는 사회교육, 문화시설에서의 사회교육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인 참여형태별로 보면 기술 및 기능습득과 취미 및 교양활동을 위한 학원강습이 가장 높았다. 이는 학원이 영리적 차원에서 성인 학습자들의 교육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시설이나 프로그램개발에 적극적인 반면, 지역사회의 문화시설이나 학교 등은 지역사회에서 사회교육 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여수준이 낮은 것은 이러한 조직들이 능동적으로 사회교육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노력이 결여되어 있으며, 지역주민 역시 학교나 문화시설 등의 사회 교육적 역할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하여 사회교육에 활용될 수 있는 자원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 사회교육 참여수준별 분포

사회교육 참여수준의 분류기준으로는 평균과

Table 1. The Participation Level of Adult Education by Institutions managed

Classification of Adult Education	Average	Standard Deviation
Adult Education being under Government Managed	7.027	2.185
Adult Education being under Cultural Facilities Managed in Community	3.983	1.673
Adult Education being under NGO or Business Entity Managed	4.382	1.712
Adult Education being under Private Educational Institution Managed	8.027	4.735
Adult Education being under Public School Managed	5.353	2.785
Adult Education Total Marks (sum total)	28.772	8.382

Mean 28.772 S.D. 8.382 Skewness 1.509

Minimum 19.000 Maximum 66.000

표준편차를 고려하여 참여수준을 3단계로 분류³⁾ 하였으며 분류된 참여수준을 집단별 인원수로 조사해 본 결과 Table 2와 같다.

Table 2. Distribution of Participation Level

Participation Level	Marks	Persons(%)
Poor	less than 23	449(37.6)
Fair	24 ~ 31	421(35.3)
Good	above 32	323(27.1)
Total		1193(100.0)

참여수준이 낮은 집단은 23점 이하인 사람으로 전체의 37.6%(449명)로 나타났고 보통인 집단은 24-31점 사이에 있는 사람으로 전체의 35.3%(421명)로 나타났으며, 높은 집단은 참여점수가 32점 이상인 사람으로 전체의 27.1%(323명)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 및 지역별 사회교육 참여수준을 분석하여 보면 Table 3과 같이 성별로 비교해 보면 참여수준이 높은 경우가 남성이 23.3%인데 비하여 여성은 30.8%로 나타났으며 낮은 경우는 남성이 39.6%인데 비하여 여성은 35.7%로서 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차가 있었다.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참여수준이 높은 경우가 대도시지역이 38.7%, 중소도시지역이 28.3%인데 비하여 농촌지역은 10.8%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낮은 수준

의 경우 대도시지역이 23.6%, 중소도시지역이 35.0%인데 비하여 농촌지역은 58.8%로 통계적으로 유의차가 있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일반적으로 성별로는 여성이,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일수록 참여수준의 정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성별에 따라 참여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은 McClusky의 잉여이론(McClusky, 1971)에서 설명하고 있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자신의 책임이행 후 남는 시간적, 경제적, 정신적 여유, 즉 잉여힘이 남성에 비해서 여성의 경우 더 많기 때문에 이러한 잉여힘이 교육적 욕구와 결합함으로써 사회교육에 참여하도록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지역별 참여수준 차이는 지역간의 인적 구성 특성 차이가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또한 사회교육참여에 개인과 환경적 측면을 강조한 Rubenson의 이론(Rubenson 1987)에서와 같이 지역간의 사회교육환경의 격차가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행정기관에서의 사회교육 참여정도

행정기관에서의 사회교육의 참여정도를 성별 및 지역별로 분석하여 보면 Table 4와 같이 남녀를 비교해보면 참여수준이 높은 경우가 남성이 24.2%인데 비하여 여성은 15.4%로 나타났으며, 낮은 경우는 남성이 21.3%인데 비하여 여성은

Table 3. The Participation Level of Adult Education on Gender and Regions

		Unit: Persons, (%)				
Division		Poor	Fair	Good	Total	Significant Value
Gender	Male	236(39.6)	221(37.1)	139(23.3)	596(50.0)	$\chi^2 = 8.49$ d.f. = 2 p = .014
	Female	213(35.7)	200(33.5)	184(30.8)	597(50.0)	
Region	Large City	103(23.6)	165(37.8)	169(38.7)	437(36.6)	$\chi^2 = 122.92$ d.f. = 4 p = .000
	Medium-Small City	145(35.0)	152(36.7)	117(28.3)	414(34.7)	
	Rural	201(58.8)	104(30.4)	37(10.8)	342(28.7)	
Total		449(37.6)	421(35.3)	323(27.1)	1193(100.0)	

3) 높은 참여수준과 낮은 참여수준을 각각 약 30%정도, 보통수준을 약 40%의 수준으로 분류할 때의 보통수준의 범위는 다음의 공식에 의해 산출하였으며 보통수준 이하는 낮은 집단으로 보통수준 이상은 높은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평균 - 0.52 * 표준편차 < 보통 참여수준의 범위 < 평균 + 0.52 * 표준편차
 위 공식에 의해 사회교육참여 총점수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보면,
 28.772 - 0.52 * 8.382 < 보통 참여수준의 범위 < 28.771 + 0.52 * 8.382
 22.4 < 보통 참여수준의 범위 < 31.1

34.2%로서 통계적으로 유의차가 있었다.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참여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도시지역으로 22.9%이며, 중소도시지역은 21.3%인데 비하여 농촌지역은 14.0%이다. 낮은 수준의 경우 대도시지역이 24.9%, 중소도시지역이 29.0%인데 비하여 농촌지역은 29.8%로 통계적으로 5%수준에서 유의차가 있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행정기관에서의 사회교육의 참여정도는 성별로는 남성이,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일수록 사회교육 참여수준의 정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사회적인 힘과 개인의 요구가 상호작용하여 참여에 영향을 미친다는 Miller의 이론(Miller 1987)과 Houle의 참여동기유형이론(Houle 1981)에서 논의된 것과 같이 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하여 직업활동 중심의 생활로 인하여 직업과 관련된 목표지향적인 성격을 띤 사회교육에 참여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학습참여의 압력으로서 사회적 힘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행정기관에서의 사회교육 참여수준이 다른 사회교육의 유형보다는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다. 지역별 참여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은 지역간의 직업구조 및 직업인구구성에 있어서 특성의 차이가 이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는데 영향을 미쳤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3) 문화시설에서의 사회교육 참여정도

문화시설에서의 사회교육의 참여정도를 성별 및 지역별로 분석하여 보면 Table 5와 같이 남녀를 비교해보면 참여수준이 높은 경우가 남성이 15.3%인데 비하여 여성은 30.2%로 나타났으며, 낮은 경우는 남성이 59.4%인데 비하여 여성은 49.9%로서 통계적으로 유의차가 있었다.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참여수준이 높은 경우가 대도시지역이 36.6%, 중소도시지역이 34.7%인데 비하여 농촌지역은 28.7%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낮은 수준의 경우 대도시지역이 49.0%, 중소도시지역이 52.2%인데 비하여 농촌지역은 64.9%로 통계적으로 유의차가 있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문화시설에서의 사회교육의 참여정도는 성별로는 여성이, 지역별로는 도시지

Table 4. The Participation Level of Adult Education being under Government managed on Gender and Regions

Unit: Persons, (%)

Division		Poor	Fair	Good	Total	Significant Value
Gender	Male	127(21.3)	325(54.5)	144(24.2)	596(50.0)	$\chi^2 = 30.29$
	Female	204(34.2)	301(50.4)	92(15.4)	597(50.0)	d.f. = 2 p = .000
Region	Large City	109(24.9)	228(52.2)	100(22.9)	437(36.6)	$\chi^2 = 11.75$
	Medium-Small City	120(29.9)	206(49.8)	88(21.3)	414(34.7)	d.f. = 4
	Rural	102(29.8)	192(56.1)	48(14.0)	342(28.7)	p = .019
	Total	331(27.7)	626(52.5)	236(19.8)	1193(100.0)	

Table 5. The Participation Level of Adult Education being under Cultural Facilities managed on in Community

Unit: Persons, (%)

Division		Poor	Fair	Good	Total	Significant Value
Gender	Male	354(59.4)	151(25.3)	91(15.3)	596(50.0)	$\chi^2 = 37.83$
	Female	298(49.9)	119(19.9)	180(30.2)	597(50.0)	d.f. = 2 p = .000
Region	Large City	214(49.0)	100(22.9)	123(28.1)	437(36.6)	$\chi^2 = 26.06$
	Medium-Small City	216(52.2)	101(24.4)	97(23.4)	414(34.7)	d.f. = 4
	Rural	220(64.9)	69(20.2)	51(14.9)	342(28.7)	p = .000
	Total	652(54.7)	270(22.6)	271(22.7)	1193(100.0)	

역일수록 참여수준의 정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성별에 따라 참여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은 McClusky의 잉여힘(McClusky, 1971)에서 설명하고 있는 잉여힘이 남성에 비해서 여성의 경우 더 많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또한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여자는 내재지향적이며 활동지향적인 동기에 의하여 사회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성향이 강하므로 문화시설 등에서의 사회교육의 참여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역별 참여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은 지역간의 사회교육환경의 격차, 특히 사회교육의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의 투입자원의 격차와 더불어 지리적인 측면에서 교육환경접근의 용이성 등에 의하여 이와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민간단체나 기업체에서의 사회교육 참여 정도

민간단체나 기업체에서의 사회교육의 참여정도를 성별 및 지역별로 분석하여 보면 Table 6과 같이 남녀를 비교해보면 참여수준이 높은 경우가 남성이 19.5%인데 비하여 여성은 16.9%로 나타났으며, 낮은 경우는 남성이 33.6%인데 비하여 여성은 41.9%로서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차가 있었다.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사회교육 참여수준이 높은 경우가 대도시지역이 24.3%, 중소도시지역이 19.1%인데 비하여 농촌지역은 9.4%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낮은 수준의 경우 대도시지역이 31.1%, 중소도시지역이 39.1%인데 비

하여 농촌지역은 44.4%로 통계적으로 유의차가 있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민간단체나 기업체에서의 사회교육의 참여정도는 성별로는 남성이,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일수록 참여수준의 정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행정기관에서의 사회교육과 같이 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하여 직업활동 중심의 생활로 인하여 직업과 관련된 목표지향적인 성격을 띤 사회교육에 참여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사회적 힘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역별 참여수준의 차이도 지역간의 직업구조 및 직업인구구성에 있어서 특성의 차이가 이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는데 영향을 미쳤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5) 사설학원에서의 사회교육 참여정도

사설학원에서의 사회교육의 참여정도를 성별 및 지역별로 분석하여 보면Table7 에서와 같이 남녀를 비교해보면 참여수준이 높은 경우가 남성이 16.6%인데 비하여 여성은 29.3%로 나타났으며, 낮은 경우는 남성이 42.4%인데 비하여 여성은 33.8%로서 통계적으로 유의차가 있었다. 참여수준의 정도를 거주지역별 살펴보면 참여수준이 높은 경우가 대도시지역이 35.9%, 중소도시지역이 20.8%인데 비하여 농촌지역은 8.2%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낮은 수준의 경우 대도시지역이 20.6%, 중소도시지역이 36.7%인데 비하여 농촌지역은 62.3%로 통계적으로 유의차가 있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사설학원에서의 사회교육의

Table 6. The Participation Level of Adult Education being under NGO or Business Entity managed on Gender and Regions

						Unit: Persons, (%)
	Division	Poor	Fair	Good	Total	Significant Value
Gender	Male	200(33.6)	280(47.0)	116(19.5)	596(50.0)	$\chi^2 = 8.79$
	Female	250(41.9)	246(41.2)	101(16.9)	597(50.0)	d.f. = 2 p = .012
Region	Large City	136(31.1)	195(44.6)	106(24.3)	437(36.6)	$\chi^2 = 33.93$
	Medium-Small City	162(39.1)	173(41.8)	79(19.1)	414(34.7)	d.f. = 4
	Rural	152(44.4)	158(46.2)	32(9.4)	342(28.7)	p = .000
	Total	450(37.7)	526(44.1)	217(18.2)	1193(100.0)	

Table 7. The Participation Level of Adult Education being under Private Educational Institution managed on Gender and Regions

						Unit: Persons, (%)
	Division	Poor	Fair	Good	Total	Significant Value
Gender	Male	253(42.4)	247(41.4)	96(16.6)	596(50.0)	$\chi^2 = 30.31$
	Female	202(33.8)	220(36.9)	175(29.3)	597(50.0)	d.f. = 2 p = .000
Region	Large City	90(20.6)	190(43.5)	157(35.9)	437(36.6)	$\chi^2 = 156.16$
	Medium-Small City	152(36.7)	176(42.5)	86(20.8)	414(34.7)	d.f. = 4
	Rural	213(62.3)	101(29.5)	28(8.2)	342(28.7)	p = .000
	Total	455(38.1)	467(39.1)	271(22.7)	1193(100.0)	

참여정도는 성별로는 여성이,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일수록 사회교육 참여수준의 정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설학원의 교육내용이 주로 기술이나 기능 습득 혹은 취미 및 교양활동 등과 관련된 교육활동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개인의 자질향상이나 자기충족을 위한 학습지향적이며 목표지향적인 사회교육 유형으로서 여성의 사회적 활동이 증가되면서 자신의 능력향상을 위해 기술이나 기능습득을 위한 사회교육의 활동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취미 및 교양활동 중심의 학원에의 참여정도는 여자의 경우 내재지향적이며 활동지향적인 동기가 남성에 비하여 높고 인여힘이 남성에 비해서 여성의 경우 더 많기 때문에 이와같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6) 학교에서의 사회교육 참여정도

학교에서 실시하는 사회교육의 참여정도를 성

별 및 지역별로 분석하여 보면 Table 8과 같이 남녀를 비교해보면 참여수준이 높은 경우가 남성이 15.3%인데 비하여 여성은 11.6%로 나타났으며, 낮은 경우는 남성이 68.0%인데 비하여 여성은 75.4%로서 통계적으로 5%유의차가 있었다.

참여수준의 정도를 거주지역별 살펴보면 사회교육 참여수준이 높은 경우가 대도시지역이 16.2%, 중소도시지역이 14.5%인데 비하여 농촌지역은 8.5%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낮은 수준을 살펴보면 대도시지역이 65.7%, 중소도시지역이 72.0%인데 비하여 농촌지역은 78.9%로 통계적으로 유의차가 있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학교에서 실시하는 사회교육의 참여정도는 성별로는 남성이,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일수록 사회교육 참여수준의 정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사회교육이 대학 등에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회교육에의 참여가 높은 성향을 보여 비교적

Table 8. The Participation Level of Adult Education being under Public School managed on Gender and Regions

						Unit: Persons, (%)
	Division	Low	Common	High	Total	Significant Value
Gender	Male	405(68.0)	100(16.8)	91(15.3)	596(50.0)	$\chi^2 = 8.11$
	Female	450(75.4)	78(13.1)	69(11.6)	597(50.0)	d.f. = 2 p = .017
Region	Large City	287(65.7)	78(18.1)	71(16.2)	437(36.6)	$\chi^2 = 18.6$
	Medium-Small City	298(72.0)	56(13.5)	60(14.5)	414(34.7)	d.f. = 4
	Rural	270(78.9)	43(12.6)	28(8.5)	342(28.7)	p = .001
	Total	855(71.7)	178(14.9)	160(13.4)	1193(100.0)	

대학에서의 사회교육활동에의 참여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학교중심의 사회교육활동이 목표지향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남성의 참여율이 여성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또한 지역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교육환경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대학중심의)학교에서 실시하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활동이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접근의 기회에 있어서 농촌지역보다 도시지역이 보다 유리하며, 또한 도시지역이 사회교육참여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III. 결론 및 제언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사회교육 참여수준은 중간이하(Fair) 35.3%, 낮음(Poor) 37.6%로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비대칭도는 1.51로 분석되어 정규분포에서 매우 많이 벗어나 있는 분포 형태를 보이고 있어 개인간의 참여수준의 격차가 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회교육 참여정도는 남성의 경우 목표지향성이 강한 교육을, 여성의 경우 학습지향성과 활동지향성이 강한 사회교육의 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의 배경적 특성의 차이에 따라 사회교육의 교육적 욕구와 참여동기에 차이가 있으며 특히 사회교육참여를 위한 사회적 압력 및 잉여힘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참여정도에 차이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사회교육이 대중화되지 못하고 사회교육의 활동이 일부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그 기회가 집중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사회교육의 특성상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어 개인의 사회교육적 욕구와 참여동기의 정도에 따라 참여정도의 격차가 심화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교육을 성별에 따른 사회교육 참여수준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처해 있는 환경과 참여동기를 고려하여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교육의 유형별 참여형태가 다양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

라서 문화시설 및 학교의 사회교육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적극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문화시설을 이용한 사회교육의 참여 비중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역간의 문화시설의 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회교육 유형에 따른 참여수준을 보면 사설학원에서 운영하는 사회교육의 참여수준은 8.027,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사회교육은 7.027의 순이며, 문화시설에서 운영하는 사회교육 참여수준은 3.983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사회교육의 참여정도는 사회교육의 유형별 차이가 있으며 그중에서 사설학원에서의 사회교육의 참여가 높은 반면 지역사회의 문화시설이나 학교에서 실시하는 사회교육의 참여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사회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문화시설이나 학교의 사회교육적 역할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사회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지역사회의 문화시설 및 학교의 사회교육적 기능이 다른 사회교육유형보다 그 비중 낮음은 우리나라 사회교육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사회교육은 교육기회의 측면에서 학교교육의 보완 또는 대안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향후 사회교육은 학교교육의 기회에서 소외받았던 계층에게 교육적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문화적 혜택이 불리한 농촌지역에 대한 사회교육의 투자확대에 정책적인 배려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문화시설 중심의 사회교육 참여정도는 사회교육의 요구 및 유형의 변화에 따라 향후 그 비중이 점차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간 문화시설의 격차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인 규모나 지역의 사업우선순위에서 차지하는 위상 등에 따라 이에 대한 투자정도는 지역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현재 문화시설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농촌지역에서는 열악한 재정자립도 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높은 전체

수준의 참여수준은 대도시(large city) 169(38.7%), 중소도시(medium-small city) 117(28.3%), 농촌(rural) 37(10.8%)로 분석되어 도시지역일수록 사회교육 참여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모든 유형에서 농촌지역보다 도시 지역의 참여수준이 높은 정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배경적 특성의 차이와 더불어 지역사회의 사회교육환경 등의 차이로 인하여 참여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개인이 사회교육에 참여하기 위한 교육적인 환경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사회교육적 환경은 개인의 사회교육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거나 사회교육참여 욕구나 동기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으로 사회교육참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변인이 된다. 따라서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교육적 환경은 사회교육에 접근하는 중요한 변인이 된다.

따라서 사회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환경적 요인으로서 물리적 시설 등 하드웨어의 확충 및 발굴과 더불어 사회교육 프로그램인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 보급, 그리고 사회교육을 담당하는 단체들은 이러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인 평생교육사들의 확충을 통해 체계적인 사회교육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권두승(1991), "한국 사회교육의 변천에 관한 사회학적 분석,"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김광하(1996), "서울시내 성인의 사회교육기회 획득에 관련된 요인에 관한 분석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김병성(1985), 학교교육과 교육격차. 한국교육개발원.
 김영주(2001), 지역사회교육과 평생교육. 지구문화사
 김종서(1993), "미래산업사회 대응을 위한 사회교육 발전 전략," 사회교육연구, 제18권, 한국사회교육협회.
 이영호(2004), 평생교육과 평생학습. 원미사.
 김진한(1992), "사회적 선택과 관련된 사회교육의 영향,"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조석호, 최운실(1986), 평생교육진흥방안,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PR-86-47.
 차갑부(1997), 열린사회의 평생교육, 양서원.
 최운실(1985), "성인교육유형에 따른 교육참여특성

분석,"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한승희(2004), 평생교육개론, 학지사.
 Ann PP, Robert JP(1978) The Sociology of Education. New Jersey : Prentice Hall.
 Boshier R(1972) "Motivational Orientations of Adult Education Participants: A Factor Analytic Exploration of Houle's Typology," Adult Education. 21, 3-26.
 Boshier R, Collins JB(1985) "The Houle Typology after Twenty-two Years: A Large Scale Empirical Test," Adult Education Quarterly, 35, 113-130.
 Boshier R(1973) "Educational Participation and Dropout : A Theoretical Model", Adult Education, 23 : 2.
 Boshier R(1977) "Motivational Orientations Re-visited : Life-space Motivation and the Education Participation Scale," Adult Education, 27 : 2, 89-115.
 Bowles S(1977) "Unequal Education and Reproduction of the Social Division of Labor," Review of Radical Political Economy, Vol.3, Fall.
 Cookson PS(1986) "A Framework for Theory and Research on Adult Education Participation", Adult Education Quarterly, 36 : 3.
 Cross PK(1991) Adult Learners ; Increasing Participation and Facilitating Learning, San Francisco: Jossey-Bass.
 Cross PK(1979) "Adult Learners: Characteristics, Need and Interests", In Richard E. Peterson Lifelong Learning in America, San Francisco : Jossey-Bass.
 Darkenwald GG, Merriam SB(2002) Adult Education : Foundations of Practice, N. Y. : Harper & Row.
 Darkenwald GG, Valentine T(1985) "Factor Structure of Determinants to Public Participation in Adult Education," Adult Education Quarterly, 35 : 4, Summer.
 Floud JE(1992) Social Class and Educational Opportunity. (London : Heoneman. Ltd.)
 Hanna A(1990) "The Social Impact of Nonregular Education," Comparative Education Review, 34 : 3, August.
 Peter J(1985) The Sociology of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London: Crom Helm.
 Peter J(2003)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 Theory and Practice. London: Croom Helm.
 Jencks C(1972). Inequality. New York: Basic Books Inc.
 Johnstone JWC, Rivera RJ(1985) Volunteers for Learning, Chicago: Aldine.
 Knowles MS(1991) The Modern Practice of Adult Education : from Pedagogy to Andragogy. Combridge : The Adult Education Company.
 McClusky HY(1971) "The Adult as a Learner," Stanley E. Seashore and Robert J. McNeil(eds.) Management of Urban Crisis. NewYork : Free Press.
 Houle CO(1981) The Inquiring Mind, Madison: Univ. of Wisconsin Press.
 Miller HL(1987) Participation of Adult Education : A

Fore-Field Analysis. Boston : Center for the Study of Liberal Education for Adults, Boston University.

Rubenson K(1987) "Participation in Recurrent Education : A Research Reviews", Paris : OECD.

Verner C, Newberry JA Jr(1985) "The Nature of Adult Participation." Adult Education, 208-222.